

특  
내용이 다양했으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



이 재 순  
(원주지부)

아카시아 꽃내음이 온 누리에 날리고 점점 짙어만 가는 신록들의 푸르름이 한결 초여름의 아침을 싱그럽게 한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대추나무잎이 유난히도 예뻐보임은 이제 나도 어느정도 이곳에 익숙해져 여유가 생긴 탓이겠지. 벌써 두번째의 여름을 맞을만큼의 시간도 흘렀으니까.

처음 이곳에 왔을때는 어른들의 말씀 내용이며 월간지의 용어들이 왜 그렇게도 생소하기만 하던지? 비교적 축산과 거리가 가까운 농부의 딸인 내가 이토록 생소하게 느꼈다면 도회지에서만 자란 모든 사람들에게겐 말할 것도 없겠지!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도 축산과 관계없던 생활이었다고 모른다면 얼마나 야속하겠는가?

지난 겨울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난로가에서 이런 저런 좌담을 나누시던 회원분께서 가까이 있는 다방에 차를 주문하셨다. 차를 들고 온 아가씨와 회원분들과 몇 마디 무슨 말인가 하는가 싶더니 무심코 책에만 열중하고 있던 내게 묻는게 아닌가?

“아가씨! 돼지는 새끼를 암놈이 낳아요? 숫놈이 낳아요?”

너무도 뜻밖의 질문이라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던 난 장남삼아 소나 개는 암놈이 새끼를 낳지만은 유독 돼지만은 숫놈이 새끼를 낳으며 그게 돼지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는 아주 신기한 사실이라도 발견한 듯 “그래요, 그래요”를 몇 번이나 확인하듯 되물더니 가 버렸다.

이처럼 자연의 순리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은 물론 어쩌다 한 둘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 믿으라고 하면 믿을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 두살 먹은 어린 아이들도 아닌데 이것저것 모든 것을 알만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에피소드를 만든다는 건 양돈업계의 발전된 인식이 아직 특정인에 제한되어 있다는 증거다.

날로 발전하는 양돈계의 모든것이 특정인의 소식으로만 전해지지 않고 일반 상식화 되려면 보다 넓은 홍보가 필요하고 그 홍보지의 독자들도 폭이 넓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월간 양돈」에 바라고 싶은 건 물론 양돈 전문지인 만큼 양돈정보나 사육기술이 우선이겠지만 꼭 필요해서 어떤 정답을 찾기 위해 읽히기보다는 아무에게나 부담없이 읽히길 수 있도록 내용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꼭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일반상식이라던가, 생활의 지혜, 문화면, 간단한 오락면을 함께하면 좀 더 우리 여성 애독자가 늘지 않을까?

모든 우리내의 양돈에 관한 인식이 높아져야만이 양돈산업도 발전할 수 있고 양돈가들의 긍지도 높아질 수 있다던 생각을 해 보면서 「월간양돈」 창간 7주년이 있기까지 힘써 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